

해남에 전국 최대 규모 농업연구단지 들어선다

삼산면 평활리 일대 60ha에 정부·전남도·해남군 등 시설 집적화 기후변화 대응 연구...5월 실시설계 용역 2025년 하반기 건립공사

땅끝 해남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국 최대 규모의 농업연구단지가 들어선다. 해남군은 삼산면 평활리 일대 60ha에 정부와 전남도, 해남군 등의 시설이 입주하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집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곳에는 오는 2027년 건립될 예정인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비롯해 전남도 과수연구소, 해남군이 투자한 농업연구단지가 조성된다.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우리나라 농식품분야 기후변화대응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이다. 지난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빠르면 2025년 하반기 건립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기존 해남·완도·나주 등 3개 시험지를 통합한 전남도 과수연구소가 해남으로 이전한다. 연구소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신품종 개발 보급과 지역 적응성 연구를 통해 지역적·기후적 경쟁력

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선도하게 된다. 25ha 규모로 올해 연말 착공해 2026년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들 시설과 함께 해남군 농업연구단지에는 고구마 연구센터와 청년농업인 스마트 임대농장, 과학영농 실증시험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고구마 연구센터의 경우 지난해 12월 착공했으며,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및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은 현재 완공돼 연구단지의 기반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농업연구 중심의 1단지에 이어 삼산면 상가리 일원 약 21ha 면적에 농업연구2단지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1단지가 기후변화대응센터 관련 연구시설 설립 등 집적화된 농업연구단지 조성에 중점을 뒀다면, 2단지는 연구·유통·생산 관련시설 등 농업관련 기업을 유치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전략이다. 2단지는 지난 5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농식품기후변화센터와 해남군 농업연구단지를 통해 국가적 과제인 기후변화대응의 농업분야 연구와 기술보급 속도를 높여 우리나라 농업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군 에너지 복지 사업 취약층 LED 조명기구 교체

영광군이 오는 8월부터 지역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고효율 LED 조명기구로 교체하는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기존 형광등을 고효율 LED 조명기구로 무상 교체함으로써 전기요금 절감 등 에너지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가구 및 공공주택 특별법 상 영구임대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서 접수를 받고 4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통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252가구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1286개를 교체 시공한다. 올해 취약계층 고효율 LED조명 교체 사업에 따라 연간 소비전력의 50%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로 연간 54만 432kWh의 전력사용량을 절감해 매년 544만 3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조명기구 수명도 3배 이상 길어 온실가스 감축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LED조명이 많이 보편화됐으나 아직까지 일반 조명기구를 쓰고 있는 곳이 많다"라며 "이번 LED조명 교체사업을 통해 밝은 생활환경으로 개선되고 전기요금도 절감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국립공원 안전문화 확산 포스터·동영상 공모전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이 국립공원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주제로 2024년도 '국립공원 재난안전 포스터 및 동영상 대국민 공모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포스터와 동영상 분야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포스터 공모전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동일 연령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크레파스, 물감 등으로 채색한 손그림(8절지, 272mm×394mm)을 디지털 파일 형태(5MB 이하 jpg)로 저장하여 제출하는 방식이다. 동영상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3분 이내의 영상을 촬영하여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1dudwn@knps.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들은 재난 안전 캠페인, 탐방객 안전교육 자료 등에 활용하고 국민들이 손쉽게 수상 작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공단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모전 관련 공고문과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알릴 스스로 지키는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수칙을 홍보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민·관 힘모아 완도 취약계층 주거 비닐하우스 새단장

싱크대 교체·보온·배기시스템 보강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완도지역 민관이 하나로 뭉쳤다. 완도군은 지난 26일 완도경찰서, 지역농협 등 기관·사회 단체와 협업을 통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 온 취약계층의 거주시설을 새 단장했다고 밝혔다. 완도군 신지면의 해당 거주시설은 재난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비닐하우스로, 보온과 배기 시스템을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완도경찰서, 완도지역농협, 여성일상지킴이, 주도인력사무소, 신지면 복지공동체, 신지면 새마을부녀회, 꼬꼬리 행복센터, 완도천막, 우리장식 등이 협업했다. 주도인력사무소는 기술 인력을 무상 지원했고 지역농협은 자재 지원, 신지면 복지공동체는 재능기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완도군과 경찰서, 여성일상지킴이, 신지면새



완도군이 완도경찰서, 지역농협 등 기관·사회 단체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거주시설을 새 단장했다.

마을부녀회, 꼬꼬리행복센터 등도 가사 정리와 싱크대 교체에 분주히 활동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씨월드고속훼리, 목포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지역인재 육성 지원 2000만원 전달

제주기업 연안여객선사 씨월드고속훼리(대표이사 이종훈)가 지난 26일 목포시청을 방문, 목포인재육성재단에 2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이종훈 대표이사는 "이번 기부금 지원은 목포 지역 인재들의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목포 지역 인재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인재육성재단 관계자는 "목포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따뜻한 지원에 감사하고, 기부금이 효과적으로 미래 인재 육성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한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목포시에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목포 인근의 보호시설 아이들에게 제주도 사랑투어를 20회째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남지방경찰청 '봄봄봄 지원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범죄피해자들의 경제적 지원과 사후 관리를 위해 지원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한편 씨월드고속훼리(주)는 과감한 투자를 자하여 국내 연안여객선사 최초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지능형 AI 상담봇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해양수산부 주관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우수선사로 선정됐다. 올해 2월에는 퀸제누비아 I 호와 쌍둥이 선박인 퀸제누비아 II호의 신규 취항 소식을 전하며 연안



이종훈(오른쪽) 씨월드고속훼리(주) 대표이사가 지난 26일 목포시청을 찾아 박홍률 목포인재육성재단 이사장에 장학금을 기탁했다.

선사의 새바람을 이끌어가고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무안군오승우미술관 내달 3일부터 3개월간 이연숙·조은솔 초대전



이연숙·조은솔 작가 초대 전시전이 내달 3일부터 10월 20일까지 무안군 오승우미술관에서 열린다. <사진> '연약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초대전은 작가들의 공간설치와 미디어 작품을 통해 연약하지만 현대와 치유, 회복의 에너지로 타인과 공존하는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결코 연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연숙 작가는 10여 년 전 호주 레지던 시에서 경험한 원주민 여성의 춤에 대한 기억을 '지금, 여기'의 시공으로 가져와 그들의 신성하고 영적인 믿음 체계를 깃털 군무로 재현함으로써 현대문명으로 위기와 상실에 빠진 인간과 자연에 회복과 치유의 에너지를 보여준다. 조은솔 작가는 천과 솜·철사·그물·체인 등 다양한 재료를 통해 식물 덩어리를 제작하여, 무성한 덩어리가 주는 생명의 풍요로움과 치유의 성분으로 나아간 인간의 몸과 서로를 공유하며 함께 진화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